

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

2010. 3. 29.

| 최근 국내 통상마찰의 증가와 배경
- 개도국과 통상마찰 늘고 있다

I. 최근 통상 마찰 증가의 특징

- (특징)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정책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한국에 대한 통상 규제 증가
 - 총 규제 건수 :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,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고 2009년 12월 현재 한국은 중국, 인도, EU, 미국 등 총 19개 나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
 - 2009년 12월 기준 122건의 수입규제는 2008년 12월의 112건 대비 8.9% 증가
 - 형태별 : 반덤핑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세이프가드 25건, 반덤핑/상계관세가 4건임
 - 품목별 : 화학제품이 46건, 철강 및 금속 29건, 섬유 21건 등으로 한국 수출의 14%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, 철강에 규제가 집중
 - 지역별 : 최근 수출이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 중심으로 비중도 확대되고 수출 증가율도 상승하는 가운데 개도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규제 급증
 - 수입규제의 주요 제소 국가가 개도국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2009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건수는 23건으로 개도국으로부터 95.7% 해당하는 22건의 피소를 당함
 - 중국, 인도 등의 신흥 아시아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는 총 수입 규제의 39% 차지

< 2009년 수입규제 현황 >

국가	미국	EU	우크라이나	터키	중국	파키스탄	러시아	인도	인도네시아	총계 (19개국)
조사중	--	1	2	--	1	3	4	4	3	18
규제중	15	4	6	9	19	3	4	23	2	104

자료 : KOTRA

< 국가 유형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>

	2006	2007	2008	2009
선진국으로부터 신규 피소 건수	4 (36.4)	3 (27.3)	2 (13.3)	1 (4.3)
개도국으로부터 신규 피소 건수	7 (63.6)	8 (72.7)	13 (86.7)	22 (95.7)
총 신규 피소 건수	11	11	15	23

자료 : KOTRA

주 : () 각각의 비중을 %로 나타낸 수치임

<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및 비중 추이 >

(단위: 전년동월대비 %)

구 분	2009					2010		
	1/4	2/4	3/4	4/4	계	1월	2월	
전 체	-25.2	-21.1	-17.6	-11.7	-13.9	45.8	30.5	
선진국	미 국	-25.2	23.0	-14.9	-12.2	-18.8 (10.4)	16.4	24.4
	일 본	-33.9	-32.7	-18.0	-5.2	-22.9 (5.9)	23.4	28.8
	E U	-32.5	-20.8	-29.6	6.3	-20.2 (12.8)	11.6	7.8
신남국	중 국	-25.1	-20.3	-6.9	45.6	-5.1 (23.9)	98.2	43.1
	인 도	-18.4	-8.9	-20.0	4.8	-10.7 (2.2)	77.0	57.6
	ASEAN	-32.6	-26.8	-19.6	18.3	-16.8 (11.3)	56.5	36.8
	중 동	-12.6	-1.8	-14.9	-10.1	-9.8 (6.6)	11.9	-1.8
	중남미	-21.2	-30.6	-20.4	-5.4	-19.5 (7.4)	34.6	62.3

자료 : 무역협회

주 : ()안은 총 수출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.

II. 통상마찰의 배경

○ (배경)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고용 확대, 글로벌 교역 규모 감소, 특정 산업 육성으로 발생한 과잉공급 해결책 등으로 보호무역 형태의 수입규제 증가

-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고용 확대 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자국 산업의 생산을 보호
 -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증가
 - 최근 인도,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고 미국, EU 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 형태의 정책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보호주의 확산
 - 러시아, 인도 등의 개도국은 실행관세가 WTO 양허관세 보다 작어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 확대

< 보호무역 형태의 정책 및 수입규제조치 >

나라	보호 무역 주의 정책 및 수입 규제 조치
미국	·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'바이아메리칸조항'을 필두로 보호주의적 지원과 정책 급증
EU	· 자동차 철강 수입 규제 강화 · 유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부활 논의
인도	·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수출품에 대해 11건의 세이프가드 수입 규제 조치 실시 · 대인도 수출 주력품인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제소 판결에 따른 조치 실시
중국	· 중국은 2009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 1건(TPA) 실시, 5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을 5년 연장을 통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지속 ·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섬유 원료(테레프탈산)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는 등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 · 철강, 자동차, 섬유 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침도 발표
ASEAN	· 말레이시아는 철강 품질표준적합성 획득을 의무화하고 인도네시아는 철강 국가표준규격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 규제를 강화
아르헨티나	· 아르헨티나 정부는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최저수입 가격제도를 확대하여 국내산업 보호 및 무역수지 흑자 확보를 위한 수입규제강화
러시아	· 자동차,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9개월 간 한시적 인상 조치

자료 : KOTRA

- **글로벌 교역 규모 감소** :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교역 규모 축소는 보호주의 성향의 통상규제를 확대
 - 글로벌 교역 규모 축소에 따른 외수시장의 위축으로 각국은 내수 시장 제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로 이어짐
- **특정 산업 육성으로 발생한 과잉공급 해결책** : 신흥국의 특정 산업 육성정책은 공급과잉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 확산
 - 신흥국은 경제 발전과정 중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을 실행하고 이는 공급과잉을 초래하였으며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세계 유효 수요 감소는 공급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
 -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

Ⅲ. 향후 전망

- (전망) 개도국 수입 규제 심화, 미·중 무역마찰로 인한 한국 수출의 피해 우려,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 확대, 한-인도 CEPA로 인한 인도와의 통상마찰은 완화 등이 전망됨
 - **개도국 수입규제 심화** : 개도국과의 무역 비중 확대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도 심화될 전망
 - 인도, 중국 등의 신흥개도국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 수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전망
 - 개도국은 실행관세가 WTO 양허관세 보다 작어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가 가능함에 따라서 관세인상 여력이 높음
 - **미·중 무역 마찰로 인한 피해 우려** : 최근 미·중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해 방어적 통상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국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도 당분간 증가될 전망
 - 미국은 '수출진흥 각료회의'(Export Promotion Cabinet)를 신설하며 5년간 수출 2배 증가를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을 위한 보호정책을 확대할 전망
 - 한국 수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0%를 넘으며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서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되어 될 것으로 예상
 - **환경규제 및 기술규제 확대** : EU와 일본 등 선진국의 중심으로 제품 생산과정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이는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술규제 강화로 인해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 확대
 - 제품의 표준, 인증절차, 검사제도, 품질 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 규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간접적인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으로 이어질 전망
 - **단, 한-인도 CEPA로 인한 인도와의 통상마찰 완화 가능성도 존재** :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나 한국인도와의 통상마찰은 다소 완화 될 전망
 - 인도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23건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나 한-인도 CEPA에 따라 이들의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
 - CEPA는 상품, 서비스, 투자, 무역구제, 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협정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성향의 무역구제조치 남발 금지

IV. 정책 과제

- **(수입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강화)** 한국 수출품이 불공정한 수입규제 조치로 피소되었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(DSB)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
 - 수출 기업에게 무역규제관련 정보와 수입규제 피소 대응 방안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피소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ONE-STOP 지원체계를 수립
- **(수출품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제도화)** 상품의 표준, 인증절차, 검사제도, 품질 안전 등의 기술규제가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용됨에 따라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제도화
 - 기술규제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수출품의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을 확립하여 관련 기준 적용을 제도화
- **(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 전략)** 미·중 통상 마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고품질 이미지 구축
 - 중국과 한국이 미국시장에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,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동반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이미지 구축
- **(환경규제로 인한 수입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)** 일본과 EU 등 선진국은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마련
 - 탄소세 및 국경세 도입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수출품 개발과 탄소배출량 규제 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
 -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방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화 높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
- **(개도국과 우호적인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)**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인 KSP(Knowledge Sharing Program)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개도국과 우호적인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통해 개도국발 통상마찰 최소화
 -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문 사업인 KSP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과 우호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증대에 따른 무역마찰 최소화

김민정 연구위원(2072-6212, kimmj@hricokr)